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별 성형태도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윤태희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별 성향태도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윤태희

# 인 준 서

윤태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형태도와 관련 있는 개인의 심리 내적변인으로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완벽주의(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을 파악하고, 각 군집들 간에 성형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성형태도 척도, 성격 5요인 척도(IPIP),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PS)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라 네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신경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고,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이 낮은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군집 2는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3요인이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낸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군집 3은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3요인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낸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군집 4는 신경증과 완벽주의 3요인이 낮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으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각 군집별 성형태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순으로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과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형태도의 구체적인 5가지 하위변인(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서는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과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이 성형에 대해 갖는 태도가 성격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형을 계획하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에 따른 이해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형태도, 성격 5요인, 완벽주의, 군집분석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문제 및 가설 ..... 8

### II. 이론적 배경

- 1. 성형태도 ..... 10
  - 1) 성형의 정의 ..... 10
  - 2) 성형태도 관련연구 ..... 11
- 2. 성격 5요인 ..... 13
  - 1) 성격 5요인의 정의 ..... 13
  - 2) 성격 5요인과 성형태도 ..... 14
- 3. 완벽주의 ..... 20
  - 1) 완벽주의의 정의 ..... 20
  - 2) 완벽주의와 성형태도 ..... 21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4
- 2. 측정 도구 ..... 24
  - 1) 성형태도 ..... 24

2) 성격 5요인 .....	26
3) 완벽주의 .....	27
3. 자료 분석 .....	28

####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32
3. 각 변인들 간의 상관 .....	33
4.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 .....	36
5.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	41
6. 군집유형에 따른 성향태도의 차이.....	43

####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	46
1) 성격 5요인 및 완벽주의와 성향태도 간의 관계 .....	47
2)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 유형별 특징과 성향태도의 차이 ...	50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54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표 1> 성형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5
<표 2> 성격 5요인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6
<표 3>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7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1
<표 5>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	33
<표 6> 변인 간의 상관계수 .....	35
<표 7> 군집화 일정표 .....	36
<표 8> 최종 군집별 중심점 .....	38
<표 9>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	41
<표 10> 군집별 성형태도 차이검정 .....	45

## 그 립 목 차

<그림 1>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	38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보도한 성형수술국제협회(ISAPS: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을 실시한 횟수가 13.5건으로, 한국을 인구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로 보고하였다(The economist, 2013). 성형수술 수행 총량으로 보았을 때 2010년 한국이 전 세계 8위였다면, 2011년에는 7위, 2014년에는 6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ISAPS, 2011; ISAPS, 2013; ISAPS, 2015).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은 ‘성형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형을 접하고(이슬, 2015), 성형을 고려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장윤형, 2013). 성형행동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의 성형기술 발전이 일조하여 성형이 급증하는 추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손은정, 2012).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완벽한 외모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즉 외모가 아름다워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고, 그 방안으로 성형수술을 선택하게 한다(공영길, 2009; 전현진, 정명선, 2010). 다시 말해서 TV, 인터넷,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가 사회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는데(Bandura, Grusec, & Menlove, 1996), 매체가 전달하는 이상적 외모에 대

한 이미지와 메시지가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이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현실적 모습과 이상적 이미지 간에 차이가 생겨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침침, 2013; 김수현, 2013).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시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성형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게 된다(우형진, 2008;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성형을 부추기는 언론보도로 인해 이제는 성형을 하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뒤쳐질 것 같은 사회적 압박까지 받는 실정이다(김기범, 차영란, 김양하, 2007).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우월한 외모를 가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풍조로 인해 ‘외모스펙’을 쌓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기도 한다(서울경제, 2015).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 부터 관심이나 선망을 받을 만한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문화 역시 외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공영길, 2009).

성형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성형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시선 역시 성형을 증가시켰다. 언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 비추어줌으로써 성형을 ‘남들도 다 하고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김기범, 차영란, 김양하, 2007). 이로 인해 성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도 이제는 ‘효도성형’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이다(장미, 2014).

성형의 용이성 또한 한국의 성형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성형은 작고 가벼운 방법으로 시술한다는 의미를 가진 ‘쁘띠성형’이다(장미, 2014). 뿌띠성형은 메스(me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과정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술과 달리 개선 부위에 대한 회복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시술’이라 불린다(김병건 외, 2012).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외모개선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연휴나 휴가를 이용하여 성형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

고 있다(김다영, 2015). 또한 이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성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형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처럼 성형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과거의 전통적 목적을 넘어서, 이제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거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용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김유경, 2013; 장미, 2014).

그러나 성형은 자기존중감 향상이나 우울감 감소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지만(김영주, 2007; Edgerton, Meyer, Jacobson, 1961; Goin, Goin, Gianini, 1977), 자아상실, 대인기피증, 타인들의 평가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현상을 낳기도 한다(김기범, 차영란, 김양하, 2007; 김봉인, 장서지, 2010; Cash & Labarge, 1996). 또한 성형수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나 부작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이소아, 2015). 성형수술 의존이 성형중독에 까지 이르러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했던 ‘선풍기 아줌마’의 보도(신용환, 박진홍, 김태연, 2004), 성형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진 기사(안아람, 2015), 뼈를 깎는 수술 도중 혈압이 낮아져 결국 심장이 멈춘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권대익, 2015). 결국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한 성형수술이 인간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이러한 성형수술의 위험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성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연령대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배원혁, 2010). 하지만 성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성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성형과 관련된 심리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성형과 관련되어 실시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성형수술에 대한 의료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 변인과 관련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성형과 관련된 심리적 연구로는 우선 성형수술 경험자들에게 간이 정신진단검사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를 실시한 연구가 있다. 이 검사를 성형수술 전후에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의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의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변금순, 민성길, 김선아, 신극성, 1999; 지경환, 이상익, 2001). 다면적 인성검사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 Inventory)를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진호 등(1983)의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대상자들이 모두 정상범주 안에 포함되었지만, 안재훈 등(1993)의 연구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집단에서 성격문제 유형이 전체의 54%, 정신증 유형이 36.4%로 나타났고, 선천성 기형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를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성형수술집단에서는 신경증 유형이 전체의 46.7%, 성격문제 유형이 40%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와 성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수현(2013)의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 중 모바일이 성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침첨(2013)이 TV를 통한 여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비현실적 묘사의 노출이 신체불만족과 동일시를 매개로 성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TV 노출은 성형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신체불만족을 매개로 성형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TV 노출은 동일시를 통해 성형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오랜 시간동안의 TV 시청이 성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TV 시청을 통해 TV 프로그램 내의 주인공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가 성형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한편, 김완석과 조옥경(200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주 감시하고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기존중감은 성형의도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전경란과 이명희(2002)는 여성에게

외모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더 많은 매력을 느낄수록 자기존중감도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형을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을 밝혔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존중감이 성형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김유경(2013)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존중감을 낮게 평가한 학생일수록 고통을 감내할지라도 성형을 통해 외모를 개선하고자하는 욕구가 더 큼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김영아와 정향인(2014)의 연구에서는, 성형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기존중감 간에 차이가 없고, 또 성형중독 성향에 따라 나뉜 네 집단 즉 성형 중독군, 중독 위험군, 긍정적 기대군, 안정군의 자기존중감 간에도 차이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성형과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해 이전 연구들과 비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성격이 개인의 행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성형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격과 성형태도 간의 관계가 연구되어졌다(Kvalem, von Soest, Roald, & Skollebor, 2006; Swami, Hadji-Michael, & Furnham, 2008). 18세부터 35세에 이르는 노르웨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형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분석한 Javo와 Sølief(2010)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높을수록(정서적 안정감이 낮을수록),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성형태도가 높아지며, 외향성은 성형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valem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외모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지만, 친화성과 성실성은 성형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즉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외모 지향적이며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외모 지향적이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들은 덜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비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Swami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우호성이 낮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신경증이 낮을수록(정서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 외향성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성격 이외에 또 다른 성형에 대한 주요예측변인으로 완벽주의가 성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된 바 있다(Hewitt 등, 2003). 이에 손은정(2011)이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경험적 차원, 신체상 차원으로 나누어 성형태도와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성형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형을 경험한 집단에서 성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완벽주의적 성향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형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완벽주의 간에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tzpatrick et al., 2011; Sherry, Hewitt, Lee-baggley, Flett, & Besser, 2007).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완벽주의가 낮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성형을 선호함을 밝혔다. 완벽한 모습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상적 신체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적 신체와 실제 신체와의 괴리를 인지했을 때 신체적 불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만족감을 해소하고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여 이상적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성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Hewitt, Sherry, Flett, & Shick, 2003). 또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고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성형을 하고자 하고(Hewitt et al., 2003), 사회적 위치에 대해 타인과 자주 경쟁하며 남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성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Fitzpatrick et al., 2011; Wyatt & Gilbert, 1998). 국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성형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손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신체불만족을 통해 성형태도에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많이 의식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찰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 많이 비교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 증가로 성형에 대해 더 높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성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연구들 간에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Kvalem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태도를 개인의 내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성형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라 여대생들이 특정 군집으로 분류가 되는지 살펴본 후, 이들의 성형에 대한 태도가 군집 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형을 가장 빈번히 하고 있다 밝혀진 연령대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성에 대한 정보가 성형을 계획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고, 도출된 군집들 간에 성형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완벽주의(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성형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가설 1-1.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형태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이 존재하는가?

가설 2.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지닌 군집을 이룰 것이다.

**【연구문제 3】**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라 도출된 군집들 간에  
성형태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가설 3.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들이 성형태도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형태도

#### 1) 성형의 정의

성형수술(plastic surgery)은 선천적인 기형이나 상해로 인해 변형된 신체나 미관상 흉한 신체적 부위를 교정하고 복원하는 수술을 의미한다(강진성, 1995). Plastic의 어원은 ‘형태를 만들다’ 혹은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를 뜻하는 희랍어 ‘Plastikos’에서 유래되었다(강진성, 1995). 성형수술은 사고나 재해로 인해 손상된 외모를 복원하여 기능을 되살리는 재건성형(reconstructive plastic surgery)과, 본래의 신체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변형하는 미용성형(aesthetic/cosmetic surgery)으로 나뉜다(김봉인, 장서지, 2010).

성형은 기원전 6-7세기에 인도의 수수루타(Susruta)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양두병, 1998). 당시 인도에서 전쟁 때 포로나 죄인에게 코를 잘라 신체적 고통과 모욕을 함께 주는 형벌을 주었는데, 절단된 코를 재건하는 방법이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로 전달되어 성형이 이어져왔다(김봉인, 장서지, 2010; 유해숙, 2013). 미적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근대적 성형은 19세기 말 미국인 John Orlando Roe가 미를 위해 여성의 콧등에 혹을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Rogers, 1986).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성형은 의료적 목적을 넘어 외적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미용성형이 주가 되었다(임인숙,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성형’은 미용성형을 지칭하는 바이다.

## 2) 성형태도 관련 연구

성형태도는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형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정도를 말한다(이혜경, 2013). 한국 사회에서 외모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대부터 성형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지경환, 이상익, 2001). 김미란(2004)의 보고에 따르면, 성형의 주 수요층인 대학생들은 성형수술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경숙(2002)이 성형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형비희망군보다 미적 개선을 위해 성형을 실시한 수술군에서 성형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성형군, 성형희망군, 성형비희망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존중감은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비희망군, 수술군, 희망군 순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된 김영아와 정향인(2014)의 연구에서는 성형중독척도로 전국에 있는 여대생 223명을 측정된 결과 전체 21.1%가 안정군, 35.0%가 긍정적 기대군, 32.7%가 중독위험군, 11.2%가 중독군에 해당하여, 전체 약 45%에 이르는 여대생들이 성형에 대한 중독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이유들로는 외모향상, 스스로에 대한 느낌 향상,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자 함, 젊게 보이하고자 함 등을 들고 있다(전경란, 이명희, 2002). 연령별로 성형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비교한 송경자와 김재숙(2005)의 연구에서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높은 성형욕구를 보였고, 성별로 나누어 성형욕구를 비교한 차진희(199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형에 더욱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지경환, 이상익, 2001), 이들이 성형을 하게 되면 결과

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반복적인 재수술을 시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Castle, Honigman, Phillips, 2002). 하지만 이들에게는 신체적 변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성형으로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치기보다 심리적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Castle et al., 2002).

최근 성형태도 또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는 성형에 대한 사회적 표상(김기범 등,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김수현, 배현숙, 2014; 김영아, 정향인, 2014; Henderson-King & Brooks, 2009), 사회문화적 변인(손은정, 2007), 신체상(김영아, 정향인, 2014; 손은정, 2007; 이해경, 2011; 임소연, 2000), 신체왜곡(손은정, 양난미, 2009), 외모 존중감(김완석, 조옥경, 2009), 신체적 놀림이나 차별을 당한 경험(손은정, 2011; 임인숙, 2004), 완벽주의(손은정, 2012), 자기존중감(김영아, 정향인, 2014; 손은정, 2011; 임소연, 2000), 수치심(김완석, 조옥경, 2009), 감사성향(백인혜, 2013), 아버지의 태도(Henderson-King & Brooks, 2009), 성격 5요인(Swami, Chamorro-Premuzic, Bridges, & Furnham, 2009), 성형수술에 대한 과거 경험(김영아, 정향인, 2014) 등이 연구되어왔다.

이 밖에 성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시행된 외과적 의료연구가 가장 많고, 이에 비해 성형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연구 역시 대부분 외국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로 한국인의 성형태도에 관한 심리내적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성형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 2. 성격 5요인

### 1) 성격 5요인의 정의

성격(personality)이란 개인의 감정, 인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기질적 특징으로 정의된다(Pervin, 2008). 성격은 가면이란 뜻의 라틴어 'persona'가 어원으로, 고대 무대에서 배우들이 보이는 특징적 인상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윤연희, 2012). Eysenck(1960)은 성격을 개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개인의 성품, 기질, 지성 등의 잠재적 조직이라 정의하였고, Allport(1921)는 성격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결정하는 심리 물리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성격은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나 특성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항상성을 지닌 심리적 체계라 할 수 있다(윤연희, 2012).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되며, 유전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조건, 얼굴의 생김새, 자율 신경계,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개인의 역사적인 경험 등이 작용한다(윤연희, 2012).

현재까지 성격은 Cattell(1946), Fiske(1949), Norman(1963)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로 설명되어져 왔고, 이제는 5요인 모델이 성격을 설명하는 확고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Goldberg, 1990). 1981년 Goldberg가 자신의 연구를 포함하여 성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관된 5가지의 요인이 있음을 밝혔다(Goldberg, 1990). 이 다섯 가지 요인을 'Big Five'라 부르고, 성격들의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내용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

(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 2) 성격 5요인과 성형태도

성격은 개인이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는 방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Javo & Sørli, 2009). 따라서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어질 때 그 평가가 개인 스스로가 바라보는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Kvalem et al., 2006). 성격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의 차이는 개인의 신체상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성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낳게 한다(Swami, Chamorro-Premuzic, Bridges, & Furnham, 2009).

### (1) 신경증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신경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 적개심,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McCrae & Costa, 1987). 신경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형태로 반복적 자기감시를 함으로써, 외모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진다(Kvalem et al., 2006). 또한 신경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신경증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향비교 즉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빈도가 높아져,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Van der Zee, Buunnk, Sanderman, Botke, & Van der Bergh,

1999). 신체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결국 높은 성형의도로 이르게 된다(손은정, 2012).

이는 심리적 문제없이 성형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성형외과를 찾는 것만으로도 신경증이 있다는 Hill과 Silver와 (1950)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성형수술환자를 대상으로 MMPI를 실시하여 성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윤근철, 이윤희, 김중술(1984)의 연구에서도 신경증과 관련이 높은 Hs, D, Hy 척도가 상승하여, 성형이 신경증적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Eysenck 성격검사 EPI(Eysenck 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한 Hay(1970)의 비교분석 연구에서도 성형한 집단이 성형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경증적이고 강박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성형 전과 비교했을 때, 성형 후 대상자들의 신경증과 불안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성형과 신경증간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Ercolani, Baldaro, Rossi, & Trombini, 1999). 한상준 등(1991)이 국내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도, 환자들이 수술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신병적 경향보다 신경증적 경향과 성격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Davis, Dionne, 와 Shuster(2001)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단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 외모 지향적이라는 결과를 보였고, Davis, Claridge, 와 Brewer(1996)는 높은 신경증이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예측함을 밝혔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신경증이 외모에 대한 불만족, 성형태도 및 성형경험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Thomas & Goldberg, 1995).

## (2) 외향성

외향성(extraversion)은 내향성(introversion)과 반대되는 기질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윤연희, 2012). 외향성은 정열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자유롭게 나누는 특성이 있다. 외향성과 성형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Thomas와 Goldberg(1995)의 연구에서는 은둔적이고 조심성을 보이는 성향, 즉 외향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얼굴에 대한 더 큰 불만족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Kvaalem 등(2006)은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걸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타인의 의견에 더 많은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신체적 외모에 대한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성격 요인들보다 낮은 외향성(높은 내향성)과 높은 신경증이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외모를 추구하는 외모지향적인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성격요인 모두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예측했지만, 두 성격요인의 외모를 지향하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외모 평가에 차이를 보임을 나타냈다. 즉,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하여 방어적 형태로 자신의 외모를 자주 감시하고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기 위한 자기 기여의 형태로 자기감시가 높아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성형에 대한 의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성형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암시한다. Von Soest, Kvaalem, Skolleborg, 그리고 Roald(2009)의 연구에서도 성형을 계획하고 있는 집단이 성형 비계획 집단

에 비해 더 높은 외향성을 보임으로써 성형태도와 외향성 간에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Javo와 Sørli(2009)의 연구와 Swami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 중 외향성은 성형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성형태도와 외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비일치됨을 알 수 있다.

### (3) 친화성

친화성(agreeableness)은 적대감(antagonism)과 반대되는 기질로,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윤연희, 2012). Javo와 Sørli(2009)가 노르웨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 정서적 고통, 과거 외모에 대해 놀림 받았던 경험, 부모와의 관계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지 분석한 결과, 성격 5요인 중에는 친화성만이 성형에 대한 관심을 부적적으로 설명하였다. Swami(2009) 역시 친화성이 낮을수록 성형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순응하는 기질인 친화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성형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받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응과 자신의 성격이 스스로의 외모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Kvalem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화성이 자신의 외모평가와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 (4) 성실성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방향성 결여(lack of direction)와 반대되는 성향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나 원칙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윤연희, 2012).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목표달성에 집중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Kvaalem 등(2006)의 연구에서 성실성은 외모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wami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성형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성이 성형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도 존재하면서(Javo & Sølief, 2009), 성실성은 외모 또는 성형과 다소 비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폐쇄적인 마음(closed-mindedness)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평가하며 낯선 것에 대해 인내하고 탐색하려는 특성을 말한다(McCrae & Costa, 1987). Kvaalem 등(2006)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경험에 대해 폐쇄적인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람들에 비해 창의성이 떨어지고 관습적이다. 반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되는 미적 기준에 영향을 덜 받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경험에 폐쇄적인 사람들은 사회의 전통성에서 벗어나 독특해지는 것을 꺼리므로 문화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외모를 개선하고자 한다(Swami 등, 2009). 따라

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성형을 고려하는 데에 부적인 예측 인자임을 알 수 있다.

### 3. 완벽주의

#### 1) 완벽주의의 정의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도달하기에 어려운 비현실적 기준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성격적 특성이다(Burns, 1980).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이나 자기 비하감을 경험할 수 있다(Pacht, 1984). 또한 지나친 완벽주의는 불안장애, 섭식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는 자가지향적인 인지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단일적 차원으로 정의되었지만(손은정, 양난미, 2009), 완벽주의가 개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포함한 적응적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가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ation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지향적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가지향적 완벽주의란 자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엄격한 평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검열과 같은 자기 지시적 완벽주의이다.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로 자기비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가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불안, 식욕부진증,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완벽주의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와 달리,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 관계에서의 좌절로 인해 타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타인에 대

한 비판이 동반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상적 모습이 되도록 스스로 압력을 가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 2) 완벽주의와 성형태도

완벽주의는 부모 또는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학습된 행동으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인정을 잃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 또래,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적 기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윤지현, 2005). 이들은 부과된 기준이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또 남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완벽주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개인의 성취나 자신이 가진 특징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느껴 더 큰 신체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김경희, 2010).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이상적 신체를 갖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음식섭취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신체를 변형하려는 시도를 자주하며, 운동이나 섭식조절로 변형이 불가능한 신체적 부위는 기꺼이 성형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Sherry, Hewitt, Lee-baggley, Flett, & Besser, 2005).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가 성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좌우할 만큼 성형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형 전 완벽주의 수치를 측정할 것을 권장했다. 즉, 세 가지 완벽주의 특성이 동기와 기대의 차이로 성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비현실적인 기대와 끊임없는 자기감시로 결점을 찾는

것을 좋아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성형도 실패로 지각하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주 마찰이 일어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적동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부과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형을 추구하였다.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특징과 성형 간의 관계를 연구한 손은정(2011)의 연구에서 역시 성격적 요인들 중 완벽주의가 성형을 하고자하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Sherry, Hewitt, Lee-baggley, Flett, 과 Besser(2004)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세 차원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만이 성형을 하고자하는 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에서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Sherry 등(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성형태도와 완벽주의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손은정과 양난미(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신체왜곡을 통해 성형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이나 사회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성형을 경험하는 정도도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Sherry et al., 2005; Sherry et al., 2007). 또한 자신의 삶에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성형을 고려하였다(Swami & Mammadova, 2012).

완벽주의와 관련된 요인으로 성형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섭식태도와 같이 성형태도와 관련 있는 변인

들과 완벽주의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외모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기인숙(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한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는 서양에서 연구된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성형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herry et al., 2005; Sherry et al., 2007). 신체외모의 불만족으로 인해 취한 행동인 섭식태도와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고 신체존중감이 낮아져, 부정적 섭식태도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임마누엘, 2008). 구체적으로 이해련과 김정민(2008)의 연구에서는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가 높고 폭식을 하며 섭식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Hewitt, Flett, 그리고 Ediger(1995)는 세 가지 완벽주의 중 자가지향적 완벽주의만이 식욕부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형태도와 같이 불만족스러운 신체로 인해 행동으로 이어진 섭식행동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에서 역시 국내와 서양의 비일치되는 연구결과를 보여, 완벽주의의 하위 세 변인과 성형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연구들에서 완벽주의가 성형태도를 예측함을 알 수 있었지만, 완벽주의 하위변인들에 따른 불일치되는 결과들로 인해 이를 설명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Hewitt et al., 1995; Sherry et al., 2005; Sherry et al., 2007).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총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11월에 개별접촉과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었고, 평균 1일 안에 수거되었다. 설문은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응답에는 약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다. 배부된 386부의 설문지 중 총 379부가 수거되었고, 연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의 자료를 제외한 31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성형태도

전경란과 이명희(2002) 개발한 성형태도척도를 정미실과 이금실(2007)이 수정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형태도 척도는 성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하위요인으로는 위험하더라도 성형위험을 감수하고 성형을 희망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5문항, 성형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지불하려고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성형에 대한 욕구’ 5문항,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향상시키는 데 큰 가치를 두는 태도를 측정하는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4문항, 자신이 성형한 것을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기를 원하거나 수술 전 모습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3문항,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나 기대 때문에 성형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인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미실과 이금실(2007)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이고,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는 .90, 성형에 대한 욕구는 .87,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은 .74,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는 .77,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도 .88로 신뢰롭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각각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표 1>과 같다.

<표 1> 성형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1-5	5	.84
성형에 대한 욕구	6-10	5	.89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11-14	4	.82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15-17	3	.84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18-19	2	.83
	전체	19	.92

## 2) 성격 5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하고 윤연희(201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IP가 측정한 성격 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고,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요인들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을 높게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연희(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신경증이 .87, 외향성이 .83, 친화성이 .62, 성실성이 .60, 개방성이 .8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표 2>와 같다.

<표 2> 성격 5요인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신경증	1*, 3*, 4, 12, 21, 28, 31, 37, 38, 41	10	.88
외향성	2, 8, 13, 17, 22, 26*, 32*, 36*, 44*, 49*	10	.87
친화성	6, 10, 15, 19, 24, 29, 34*, 40*, 46*, 48*	10	.81
성실성	7, 11, 16, 20, 25, 30, 35*, 42*, 45*, 50*	10	.76
개방성	5, 9, 14, 18, 23, 27, 33, 39*, 43*, 47*	10	.77
	전체	50	.85

\* 역채점 문항

### 3) 완벽주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하고 홍혜영(1995)이 재요인 분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완벽성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3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자기를 향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향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완벽주의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과되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세 영역에 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을 높게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완벽주의 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전체 .86으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81,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78,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alpha$ 는 전체 .86으로 각 요인 별 Cronbach’s  $\alpha$ 는 <표 3>과 같다.

<표 3>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1, 6, 8*, 12*, 14, 15, 17, 20, 23, 28, 32, 34*, 36*, 40, 42	15	.90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2*, 3*, 4*, 7, 10*, 16, 19*, 22, 24*, 26, 27, 29, 38*, 43*, 45*	15	.8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5, 9*, 11, 13, 18, 21*, 25, 30*, 31, 33, 35, 37*, 39, 41, 44*	15	.77
	전체	45	.91

\* 역채점 문항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라 특정 군집으로 분류가 되는지 살펴본 후, 이들의 성형에 대한 태도가 군집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19.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t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척도별 신뢰도를 검증을 위하여 Cronba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인 성형태도, 성격 5요인, 완벽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따라 어떠한 군집들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Ward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를 살펴본 뒤 군집의 수를 정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안된 군집수를 바탕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은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조합하는 것으로, 위계적 군집분석만 사용할 시 이탈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Hair & Black, 2000).

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군집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검증하여 군집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유형에 따른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군집유형별로 성형태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8세 까지로 평균 나이가 20.75세로 나타났고, 여대생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38.9%, 2학년이 20.4%, 3학년이 18.8%, 4학년이 22%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으로는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 8%,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 90.8%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39.5%, 예능계열이 22.6%, 자연/공학계열이 8.6%, 사범계열이 8.0%, 상경계열이 7.3%, 법학계열이 7.0%, 생활과학계열이 4.5%, 의학/간호 계열이 1.6%, 기타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 범위는 저체중이 18.2%, 정상이 60.2%, 과체중이 8%, 비만이 3.2%, 고도비만이 0.3%로 나타났다.

성형계획에 대한 분포는 성형 계획이 있는 사람이 전체 314명 중 61명 (19.4%), 성형 계획이 없는 사람이 251명으로 79.9%에 해당되었고, 성형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24.8%, 흉터 등의 신체부위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함이 11.1%, 현 수술의 불만족(동일 신체부위)이 4.1%, 주변의 권유가 2.2%,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 1.6%,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이성, 배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포함)가 1.6%, 기타가 6.7%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자기만족'이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성형경험 빈도별 분포는 0회가 58.9%, 1회가 23.2%, 2회가 3.2%, 3회가 1.3%, 4회가 0.3%로 나타나, 전체 연구대상자 중 41.1%가 성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4)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학년	대학 1학년	122	38.9
	대학 2학년	64	20.4
	대학 3학년	59	18.8
	대학 4학년	69	22.0
학교유형	남녀공학	25	8.0
	여자대학	285	90.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4	39.5
	자연/공학계열	27	8.6
	상경계열	23	7.3
	법학계열	22	7.0
	생활과학계열	14	4.5
	사범계열	25	8.0
	예능계열	71	22.6
	의학/간호계열	5	1.6
	기타	1	0.3
한 달 생활비	10만원 미만	2	.6
	10-20 만원	20	6.4
	20-30 만원	62	19.7
	30-40 만원	110	35.0
	40-50 만원	67	21.3
	50-60 만원	27	8.6
	60-70 만원	20	6.4
	70만원 이상	3	1.0
한 달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174	55.4
	10-20 만원	104	33.1
	20-30 만원	22	7.0
	30-40 만원	8	2.5
	40-50 만원	3	1.0
	60-70 만원	2	0.6
신체질량지수(BMI)	저체중	57	18.2
	정상	189	60.2
	과체중	25	8.0
	비만	10	3.2
	고도비만	1	0.3

성형계획	예	61	19.4
	아니오	251	79.9
성형이유	현 수술의 불만족(동일 신체부위)	13	4.1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	78	24.8
	흉터 등의 신체 부위의 결점 보완	35	11.1
	보다 나은 사회생활(직장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5	1.6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이성 또는 배우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포함)	5	1.6
	주변의 권유	7	2.2
	기타	21	6.7
성형경험 빈도수	0회	185	58.9
	1회	73	23.2
	2회	10	3.2
	3회	4	1.3
	4회	1	0.3

##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형태도, 성격 5요인의 하위 요인, 완벽주의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고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표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형태도는 4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2.08, 하위 변인 중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의 평균이 1.61, 성형에 대한 욕구의 평균이 2.24,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의 평균이 2.46,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의 평균이 2.31,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의 평균이 1.79로,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형에 대한 위험 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 5요인은 5점 기준에 신경증의 평균이 3.07-3.50로 나타났고, 완벽주의

의 평균이 2.73-3.29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n=3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형태도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1.61	.57	1.00	4.00
	성형에 대한 욕구	2.24	.75	1.00	4.00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2.46	.64	1.00	4.00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2.31	.74	1.00	4.00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1.79	.74	1.00	4.00
성격 5요인	신경증	3.07	.69	1.10	4.90
	외향성	3.27	.64	1.40	4.90
	개방성	3.31	.50	1.50	4.70
	친화성	3.50	.54	1.40	4.80
	성실성	3.19	.53	1.70	4.50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3.29	.62	1.67	4.93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2.73	.47	1.40	4.9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76	.44	1.20	4.40

### 3. 각 변인들 간의 상관

성형태도, 성격 5요인,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Cohen(1988)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거의 상관이 없고, .1-.3일 때 약한 정도의 상관, .3-.5가 중간 정도의 상관, .5-1.0이 비교적 강한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여긴다.

먼저 성형태도와 성격 5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 $r=.21, p<.01$ )과는 약한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개방성( $r=-.15, p<.01$ )과는 약한 정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개방성이 낮을수록 성형태도에 더 긍

정적 태도를 가짐을 의미한다. 반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성형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1이 부분적으로 지지하였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성형태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성형태도와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r=.14, p<.05$ ),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r=.17, p<.01$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r=.26, p<.01$ )는 약한 정도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성형태도에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표 6> 변인 간의 상관계수

(n=3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9**	1												
3	.89**	.68**	1											
4	.82**	.49**	.67**	1										
5	.52**	.19**	.24**	.39**	1									
6	.65**	.45**	.49**	.45**	.29**	1								
7	.21**	.19**	.23**	.17**	.01	.11*	1							
8	-.04	.02	.03	-.08	-.14**	-.02	-.06	1						
9	.06	.02	.08	.04	-	.08	-.09	.39**	1					
10	-.09	-.11*	-.11	-.10	-.05	.10	-.03	.19**	.35**	1				
11	-.15**	-.08	-.08	-.13*	-.17**	-.18**	.01	.42**	.31**	.18**	1			
12	.14*	.09	.10	.11	.10	.17**	.28**	.10	.16**	.45**	.11	1		
13	.17**	.15**	.14*	.08	.13*	.16**	.17**	.13*	.11*	.25**	-.01	.47**	1	
14	.26**	.18**	.19**	.21**	.15**	.31**	.29**	-.08	-.05	.08	-.15**	.39**	.42**	1

주)1=성형태도 전체, 2=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3=성형에 대한 욕구, 4=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5=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6=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7=신경증, 8=외향성, 9=친화성, 10=성실성, 11=개방성, 12=자기지향적 완벽주의, 13=타인지향적 완벽주의, 14=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6:성형태도, 7-11:성격 5요인, 12-14:완벽주의)

\* $p < .05$ , \*\* $p < .01$

#### 4.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

개인의 내적 변인인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따라 동질적 성향을 가진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모든 대상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때까지 가까운 대상끼리 묶어나가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결정한 군집의 수를 투입하여 이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의 대상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1단계에서 Ward(1963)의 방법으로 표준화한 점수를 가지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찾아낸 뒤, 제안된 군집의 수로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군집화 일정표에는 집단 간 평균 연결법에 따라 분류한 ‘단계’와 각 단계별 집단에 속한 대상 간의 거리를 나타낸 ‘군집화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군집화 계수가 클수록 분류 대상 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하고, 인접한 단계 간 제시된 군집화 계수의 차가 급격히 커지면 분류 대상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멈추고 이 때 발견된 집단을 집단의 수로 결정하였다(최현철, 2013). 즉, <표 7>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제 310단계와 제 311단계의 차이가 14.75로 매우 크기 때문에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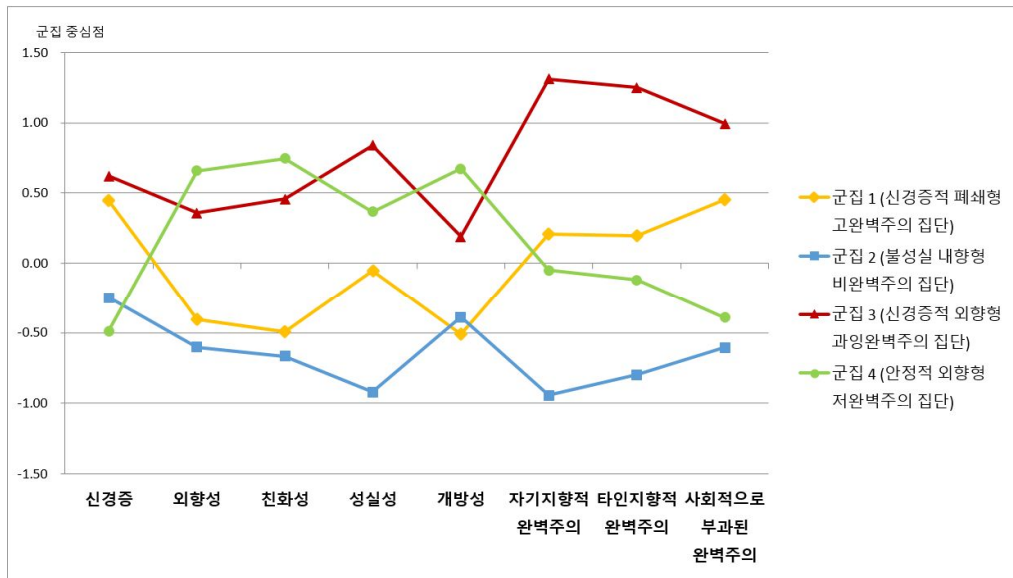
<표 7>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	·	·
·	·	·
307	25.27	0.19
308	25.46	0.38
309	25.84	4.55
310	30.39	14.75
311	45.14	9.29
312	54.43	10.04
313	64.47	

도출된 군집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군집에 해당되는 군집측정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 각 군집에 할당된 개체의 수가 고르게 나뉘고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군집의 개수를 4개로 확정하였다. 이는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지닌 군집을 이룰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각 군집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이 95명(30.3%), 군집 2가 74명(23.6%), 군집 3이 42명(13.4%), 군집 4가 103명(32.8%)으로 나타났다. 군집 별로 표준화한 변인들의 점수를 <표 8>에 나타내었고, 각 군집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특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1>을 제시하였다.

<표 8> 최종 군집별 중심점

특성	군집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신경증	0.45	-0.25	0.62	-0.49
외향성	-0.41	-0.60	0.36	0.66
개방성	-0.49	-0.67	0.46	0.75
친화성	-0.05	-0.92	0.84	0.37
성실성	-0.51	-0.39	0.19	0.67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0.21	-0.94	1.31	-0.05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0.20	-0.80	1.25	-0.1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0.46	-0.61	1.00	-0.39



<그림 1>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

군집 1의 성격적 특성으로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완벽주의적 차원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타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개방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내향적인 성향으로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적 노력을 쉽게 하지 못하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적 모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높은 좌절, 우울,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군집 1을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성격 변인과 완벽주의 변인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이 특징으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낮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매우 낮은 기대와 실수에 대한 너그러움, 느긋한 성향을 갖고 있고, 목표나 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는 성실성이 부족하다. 또한 조용한 성향으로 타인과 교제하는 것 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군집 2를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모든 군집 측정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특히 신경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고, 외향성과 친화성이 평균 이상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 및 타인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준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각하고, 이를 만족시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과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높은 욕구

로 인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기준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걱정과 긴장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감을 보인다. 따라서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높은 욕구와 신경증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특성을 종합하여, 군집 3을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가장 낮은 신경증과 가장 높은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을 나타내고, 평균 이상의 성실성과 평균 이하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보였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준이 낮거나 적당하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현실이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혹은 실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로 인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군집 4를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5.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 도출된 네 군집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표 9>과 같이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 학년, 학교유형, 전공계열, 신체질량지수(BMI), 한 달 외모 관리비, 성형 경험 빈도수, 성형계획, 성형이유에서 군집유형 간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이:  $\chi^2(df=15, n=312)=23.60, p=.07$ , 학년:  $\chi^2(df=9, n=314)=11.97, p=.21$ , 학교유형:  $\chi^2(df=3, n=310)=0.27, p=.96$ , 전공계열:  $\chi^2(df=24, n=312)=26.32, p=.34$ , 신체질량지수(BMI):  $\chi^2(df=12, n=282)=11.48, p=.49$ , 한 달 외모 관리비:  $\chi^2(df=15, n=313)=10.31, p=.80$ , 성형 경험 빈도수:  $\chi^2(df=12, n=273)=18.71, p=.10$ , 성형계획:  $\chi^2(df=3, n=312)=4.85, p=.18$ , 성형이유:  $\chi^2(df=18, n=164)=15.10, p=.65$ ].

<표 9>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chi^2(df)$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나이	18-19세	27 ( 9%)	21 ( 7%)	8 ( 3%)	36 (12%)	23.60(15)
	20-21세	48 (15%)	27 ( 9%)	22 ( 7%)	36 (12%)	
	22-23세	13 ( 4%)	21 ( 7%)	8 ( 3%)	19 ( 6%)	
	24-25세	5 ( 2%)	5 ( 2%)	1 ( 0%)	10 ( 3%)	
	26-27세	0 ( 0%)	0 ( 0%)	2 ( 1%)	2 ( 1%)	
	28세	1 ( 0%)	0 ( 0%)	0 ( 0%)	0 ( 0%)	
학년	대학 1학년	35 (11%)	28 ( 9%)	13 ( 4%)	46 (15%)	11.97(9)
	대학 2학년	26 ( 8%)	13 ( 4%)	11 ( 4%)	14 ( 4%)	
	대학 3학년	15 ( 5%)	14 ( 4%)	12 ( 4%)	18 ( 6%)	
	대학 4학년	19 ( 6%)	19 ( 6%)	6 ( 2%)	25 ( 8%)	
학교 유형	남녀공학	8 ( 3%)	5 ( 2%)	4 ( 1%)	8 ( 3%)	0.27(3)
	여자대학	86 (28%)	67 (22%)	38 (12%)	94 (30%)	

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35 (11%)	33 (11%)	11 (4%)	45 (14%)	26.32(24)
	자연/공학계열	11 (4%)	7 (2%)	1 (0%)	8 (3%)	
	상경계열	7 (2%)	6 (2%)	4 (1%)	6 (2%)	
	법학계열	5 (2%)	3 (1%)	5 (2%)	9 (3%)	
	생활과학계열	6 (2%)	1 (0%)	2 (1%)	5 (2%)	
	사범계열	7 (2%)	5 (2%)	7 (2%)	6 (2%)	
	예능계열	23 (7%)	17 (5%)	11 (4%)	20 (6%)	
	의학/간호계열	0 (0%)	0 (0%)	1 (0%)	4 (1%)	
기타	1 (0%)	0 (0%)	0 (0%)	0 (0%)		
신체질량 지수 (BMI)	저체중	23 (8%)	10 (4%)	8 (3%)	16 (6%)	11.48(12)
	정상	49 (17%)	50 (18%)	23 (8%)	67 (24%)	
	과체중	10 (4%)	4 (1%)	3 (1%)	8 (3%)	
	비만	3 (1%)	4 (1%)	0 (0%)	3 (1%)	
	고도비만	1 (0%)	0 (0%)	0 (0%)	0 (0%)	
한 달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55 (18%)	42 (13%)	17 (5%)	60 (19%)	10.31(15)
	10-20만원	29 (9%)	24 (8%)	19 (6%)	32 (10%)	
	20-30만원	6 (2%)	5 (2%)	3 (1%)	8 (3%)	
	30-40만원	3 (1%)	1 (0%)	1 (0%)	3 (1%)	
	40-50만원	1 (0%)	1 (0%)	1 (0%)	0 (0%)	
	60-70만원	1 (0%)	0 (0%)	1 (0%)	0 (0%)	
성형 경험 빈도수	0회	59 (22%)	37 (14%)	26 (10%)	63 (23%)	18.71(12)
	1회	20 (7%)	24 (9%)	10 (4%)	19 (7%)	
	2회	4 (1%)	1 (0%)	2 (1%)	3 (1%)	
	3회	1 (0%)	3 (1%)	0 (0%)	0 (0%)	
	4회	0 (0%)	0 (0%)	1 (0%)	0 (0%)	
성형 계획	예	15 (5%)	20 (6%)	10 (3%)	16 (5%)	4.85(3)
	아니오	79 (25%)	54 (17%)	32 (10%)	86 (28%)	
성형 이유	현 수술의 불만족 (동일 신체부위) 외모에 대한	6 (4%)	4 (2%)	0 (0%)	3 (2%)	15.11(18)
	자신감 부족 흉터 등의 신체 부위의 결점 보완 보다 나은	22 (13%)	22 (13%)	15 (9%)	19 (12%)	
	사회생활(직장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이성 또는 배우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포함)	10 (6%)	7 (4%)	4 (2%)	14 (9%)	
	보다 나은	2 (1%)	1 (1%)	1 (1%)	1 (1%)	
	사회생활(직장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이성 또는 배우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포함)	2 (1%)	1 (1%)	2 (1%)	0 (0%)	
	주변의 권유	4 (2%)	1 (1%)	0 (0%)	2 (1%)	
	기타	7 (4%)	5 (3%)	2 (1%)	7 (4%)	
	기타	7 (4%)	5 (3%)	2 (1%)	7 (4%)	
	기타	7 (4%)	5 (3%)	2 (1%)	7 (4%)	
	기타	7 (4%)	5 (3%)	2 (1%)	7 (4%)	

## 6. 군집유형에 따른 성형태도의 차이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라 도출된 4개의 군집에서 성형태도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성형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에서 Scheffe와 Dunnett의 T3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성형태도에 대해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성형태도는 분산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고 따라서 사후검증에서 Scheffe을 사용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F(3,310)=0.46, p=.71$ ). 그 결과 군집에 따른 성형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로 <표 10>에 이를 제시하였다( $F=3.88, p<.01$ ). 군집별 성형태도의 평균은 군집 3(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군집 1(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군집 2(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군집 3(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과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형 태도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성형에 대한 욕구,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대한 군집들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형에 대한 위험감수( $F(3,310)=.70, p=.56$ ), 성형에 대한 욕구( $F(3,310)=.78, p=.51$ ),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 $F(3,310)=1.38, p=.25$ ), 성형에 대한 비밀유지( $F(3,310)=0.74, p=.53$ ),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F(3,310)=0.80, p=.49$ )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고,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F=3.47, p<.05$ )과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F=3.98, p<.01$ )에서만 군집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은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군집 1(신경증적 폐

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군집 3(신경증적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군집 2(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는 군집 2(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군집 1(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군집 3(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성형을 통한 이미지의 향상에 대해서는 군집 1(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이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는 군집 1(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이 군집 2(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와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군집 3(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이 군집 2(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와 군집 4(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0> 군집별 성형태도 차이검정

종속변수	군집	평균	표준편차	F(3, 310)	사후검정 (Scheffe/Dunnett T3)
성형태도	군집1	2.15	.52	3.88**	군집3*군집4 (군집3>군집4)
	군집2	2.08	.49		
	군집3	2.25	.58		
	군집4	1.96	.47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	군집1	2.44	.74	3.47*	군집1*군집4 (군집1>군집4)
	군집2	2.12	.74		
	군집3	2.24	.75		
	군집4	2.54	.59		
성형에 대한 타인의 기대	군집1	2.50	.64	7.82**	군집1*군집2 (군집1>군집2)
	군집2	2.60	.75		군집1*군집4 (군집1>군집4)
	군집3	2.30	.61		군집2*군집3 (군집3>군집2)
	군집4	2.46	.64		군집3*군집4 (군집3>군집4)

\* $p < .05$ , \*\* $p < .01$

## V. 논 의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을 탐색하고 군집유형들의 성형태도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여대생들이 갖는 성형태도와 관련이 높은 심리내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성형으로 내적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심리적 특성에 따른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변인인 성격 5요인, 완벽주의, 성형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 3가지를 군집 측정치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의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군집들(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학년, 학교유형, 전공계열, 신체질량지수, 한 달 외모 관리비, 성형 경험 빈도, 성형 계획, 성형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개의 군집들의 성형태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격 5요인 및 완벽주의와 성형태도 간의 관계

먼저 성격 5요인과 성형태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5가지 성격 중 신경증이 성형태도와 가장 높은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걱정이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을 자주 경험할수록 성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짐을 보였다. 이는 신경증과 성형태도 간에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며(윤근철 등, 1984; Hill & Silver, 1950), 신경증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주은경, 2013), 이상적 외모 개선을 통하여 외모평가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자 성형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수용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정도와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모두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윤연희, 2012), 높은 신경증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감과 우월한 외모로 인정받기 위함으로 인해 성형을 통한 외모 개선에 더욱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개방성이 낮을수록 성형에 대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성이 낮을수록 더 많이 성형을 고려한다는 Kvaalem, von Soest, Roald, 그리고 Skolleborg(2006)의 연구와 Swami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외모기준에 독립성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성형에 대한 고려가 낮지만, 전통적 권위에 순종하는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성형에 대한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성형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과 친화성 만이 성형과 관련이 있다는 Kvaalem 등(2006)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지만, 외향성이 성형태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Swami 등(200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완벽주의와 성형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완벽주의가 모두 성형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는 완벽주의 세 하위요인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선행 연구와 맥을 함께하는 결과이다(기인숙, 2009).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 성형태도와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Sherry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성형태도와 관련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만이 성형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완벽주의가 모두 성형태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을 평가할 때 외모에 많은 비중을 두는 한국과 달리 서양은 외모를 포함한 개인의 능력이나 내재적 기술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Jung & Lee, 2006),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성형태도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현대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홍승표, 2010), 서양에 비해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한국인들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성형을 통한 외모개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서양의 경우 타인에게 갖는 기대의 실현여부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타인을 향한 기대의 충족여부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현강(2007)의 연구결과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성형태도간의 높은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결과는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성형태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하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성형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3을 지지하였다.

## 2)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 유형별 특징과 성형태도의 차이

성격 5요인과 3가지 완벽주의 요인에 따라 도출된 군집은 총 4개로,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군집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집 유형인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30.3%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신경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평균 이상이고,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외모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낮다. 미래의 가능성 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인해, 이상적 모습과 현재 모습에서의 차이를 좁혀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차이에 대한 괴리감에 집중하여 낮은 자존감, 좌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내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덜 긍정적 정보를 많이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김유미, 2008)를 통해, 높은 내향성을 갖고 있는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경험했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주 회상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이미화, 2001).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신체 모습과 자신의 외모의 차이를 성형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고(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이 성형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을 설명해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군집 유형인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은 전체의 23.6%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모든 군집 변인인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과 완벽주의 세 가지 요인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과묵하게 있거나 모임을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잘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김경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와의 의사소통이 적은 이들에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외모가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성이 낮은 이들은 타인보다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나 도덕적 의무를 지키기 어려워하고, 시작한 일을 끝마치기 어려워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나 모습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김유미, 2009). 따라서 성실성, 타인에 대한 관심, 완벽주의 하위 요인이 모두 낮은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기준에 대한 관심이 적고,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지각하지 못하여, 성형태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 번째 군집인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13.4%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다섯 가지 성격 변인과 세 가지 완벽주의 변인이 모두 높고, 그 중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다른 군집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하는 정도가 높고,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신 혹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타인 역시 자신의 외모를 엄격하게 평가할 것으로 지각하고, 이러한 비현실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타인으

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과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높은 욕구로 인해, 주어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또한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해 늘 불안해하고, 자신이나 사회가 요구한 이상적 모습에 도달하지 못해 실패적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는 큰 좌절을 느낀다(Hewitt & Flett, 1991). 즉, 외적 모습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 간의 불일치는 낮은 자신감과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낮추기 위해 성형을 통한 확실한 외모개선을 하고자 한다. 이는 신경증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을 예측했던 Davis, Claridge, 그리고 Fox(2000)의 연구를 지지하는 바이며,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 집단 중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집단이 성형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목표를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높은 성실성이 성형으로 외모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더욱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군집 유형인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은 전체 연구 대상자의 32.8%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경증과 세 가지 완벽주의가 모두 낮고,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이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세상을 안전하고 수용적인 곳으로 지각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활동적이며, 타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 또한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며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지각하지 못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으로 성형태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는 가장 높은 성형태도 점수를 보인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차이를 나

타냈다. 이는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수용하고, 자신의 현재 삶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윤연희, 2012), 성형을 통한 외모개선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지닌 군집을 이룰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며, 도출된 군집유형들이 성형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어 가설 3 또한 지지되었다. 군집별 성형태도를 비교했을 때 ‘신경증적 외향형 과잉완벽주의 집단’, ‘신경증적 폐쇄형 고완벽주의 집단’, ‘불성실 내향형 비완벽주의 집단’, ‘안정적 외향형 저완벽주의 집단’ 순으로 긍정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군집 별로 나타내는 신경증의 점수의 크기순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류된 네 집단들은 측정된 여덟 가지의 심리내적 변인들(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중 신경증이 성형태도와 가장 높은 정적관련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경증과 성형태도가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안재훈 등, 1993; Javo, Sølief, 2009; Kvaem et al., 2006).

##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격과 완벽주의에 따라 군집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여대생들의 심리내적 상태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성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심리내적 변인들과 성형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덟 가지 심리내적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이 성형태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할 수 있었다. 성형의 수요가 높아짐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지만, 현재까지 성형을 연구한 학술들은 의학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성형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심리내적 요인 중 성격이 성형태도와 관련이 높다는 해외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변인을 추가하여 변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형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형태도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성형의 심리적 측면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지금까지는 서양의 연구결과로 성형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서양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에서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성형에 대한 사회적 태도, 성형실행빈도 등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로 한국인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최근 손은정(2007)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성형태도에 대한 심리적 연구들(손은정, 양난미, 2009; 손은정 2009; 손은정 2012; 백인혜, 2013)을 기초로 한국인의 심리내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성형에 대한 선행연구가 희박한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성형태도를 측정하는 타당화된 척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성형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된다면 성형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속하는 여대생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 청소년이나 대학을 졸업한 여성, 혹은 타 지역의 여대생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여대생 중 다수가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남녀 재학 중인 여대생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여대생의 심리적 변인에 따른 군집유형 별 성형태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탐색연구로 진행되어 여대생 전체를 연구분석 대상으로 두었지만, 성형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형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통해 성형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성형태도에 대한 심리내적 변인들을 분석한다면, 성형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진성 (1995). 최신 성형외과학.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
- 강혜원 (1995). 의상 사회 심리학. 서울:교문사.
- 고침침 (2013). TV 시청이 성형수술에 대한 현실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불만족과 동일시의 매개효과 검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영길 (2009).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대익 (2015, 1, 2). 성형외과 잇단 일탈 과장광고부터 엄벌을. 한국일보, p. 20.
- 기인숙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외모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10).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범, 차영란, 김양하 (2007). 한국문화에서 성형에 대한 담론과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일반인들의 마음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77-393.
- 김다영 (2015). 설 연휴 ‘효도성형’ ‘가족성형’ 특수. 문화일보, p. 2.
- 김미란 (2004).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건, 김재훈, 서일범, 박상훈, 엄순찬, 이종희, 김태은, 장두열, 박성수, 백인구, 이동진, 이하영, 노윤우, 송용태, 유종호, 최승호 (2012). 미용성형의 명의 16. 서울:북인, 169.
- 김봉인, 장서지 (2010). 미용 성형수술을 통한 미적 관점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21, 163-177.

- 김수현 (2013).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배현숙 (2014).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외모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0(2), 253-261
- 김영아, 정향인 (2014). 여대생의 미용성형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 융복합연구, 2(12), 621-631.
- 김영주 (2007). 미용체형 성형수술 후 신체상과 자기존중감 및 만족도 변화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1236-1246.
- 김완석, 조옥경 (2009). 미용성형 의도, 신체이미지와 신체가치관의 관계: 여성요가인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4), 611-632.
- 김유경 (2013).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외모도구성, 외모존중감, 그리고 성형의도간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7(5), 171-186.
- 김유미 (2009). 5요인 성격모형을 이용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특성 비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양수 (2001). 완벽주의와 내-외향성이 스트레스 경험 후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문정신 (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경 (2014). 미디어관여도, 외모만족이 성형태도,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4), 101-116.

- 박임마누엘 (2008). 완벽주의와 사회문화적 외모가치 기준의 내면화 및 수치심과 신체존중감 그리고 섭식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보현 (2008). 미용성형수술제약요인에 대한 적극적 극복전략선택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원혁 (2010, 8, 16). [프로페셔널 라인] 어린이 성형수술. LA중앙일보, p. 23.
- 백인혜 (2013).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성형태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 자기애의 매개효과와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금순, 민성길, 김선아, 신극선 (1999). 미용성형수술과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1), 94-104.
- 성영신 (1997). 소비와 광고 속의 신체 이미지. 사회비평, 17, 31-45.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손은정 (2011).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 사회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6(1), 23-42
- 손은정 (2012). 성인기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생애주기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49-173.
- 손은정, 양난미 (2009). 대학상담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왜곡의 매개 역할. 상담학연구. 10(2), 1245-1258.
-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

- 중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 391-402.
- 신용환, 박진홍, 김태연 (200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 SBS TV
- 신유정 (1994). 성형수술환자의 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기 존중감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아람 (2015, 1, 30). 중국인 여성,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 도중 뇌사. 한국일보.
- 안재훈, 김용운, 백무현, 김승홍, 민대홍, 이영식, 이철원 (1993). 성형수술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I). 대한성형외과학회, 20(5), 945-968.
- 양두병 (1998). 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 서울: 범조사.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형진 (2009).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4), 480-513.
- 유태용, & 이기범.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유혜숙 (2013).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근철, 이윤호, 김중술 (1984).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한 성형외과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고찰. 대한성형외과학회, 11(1), 35-39.
- 윤수미, 정다운, 정주희 (2013). 무용전공학생의 미용성형 인식 및 경험 실태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0(3), 67-86.
- 윤연희 (2012). 성인 여성의 5요인 성격특성, 대인관계성향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미디어 노출이 성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

국의류산업학회지, 8(2), 177-182.

윤지현 (2005). 여자대학생의 신체불만족, 외모가치 내재화,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 (2002). 일부 지역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아 (2015, 2, 4). 성형수술 부작용 27%가 ‘짜짜이’. 중앙일보, p. 18.

이수경, 조현정 (2014).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8(4), 528-539.

이슬 (2015, 7, 3). 20대 10명 중 4명, 외모도 스펙, 성형수술 혹은 시술 경험 있다. 서울경제.

이진호, 김용배, 방유현, 박종섭, 노명래(1983).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고찰. 대한성형외과학회, 10(3), 279-283.

이혜경 (2011). 여자고등학생의 성형수술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126-136.

이혜경 (2013).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 285-293.

이혜련, 김정민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충동성 및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29, 39-51.

임소연 (2000).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임인숙 (2008). 성형중독 척도 제작과 타당화를 위한 예비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 (2014).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 (2013, 9, 30). 성형 권하는 한국, 수술 횟수 세계 1위. 국민일보.
- 전경란, 이명희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2(6), 71-83.
- 전현진, 정명선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734-741.
- 정미실, 이금실 (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 주은경 (2013).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격5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4). 559-568.
- 차진희 (1994).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 연구: 대전, 충청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9(5), 738-746.
- 최미혜, 김경희 (2013).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1), 26-33.
- 최현철 (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 PC+(20.0). 파주: 나남.
- 하정희, 송영선 (2005).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수술 전, 후 신체상 및 삶의 만족도. 간호학, 17(1), 59-69.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준, 안재훈, 백무현, 김승홍, 민대홍 (1991). 성형수술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 대한성형외과학회, 18(6), 21-46.
- 홍병숙, 백인선 (2006). 남성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생활과학논집, 24, 49-66.

- 홍승표 (2010).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문제점과 동양사상을 통한 해결방안. *한국학논집*, 41, 263-278.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F. H., & Allport, G. W. (1921). Personality Traits Their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16(1), 6-40.
- Allport, G. W. (1921). Personality and character. *Psychological Bulletin*, 18(9), 441-455.
- Anderson, J. A., & Olnhausen, K. S. (1999). Adolescent self-esteem: A foundational disposition. *Nursing Science Quarterly*, 12(1), 62-67.
- Avia, M. D., Sanchez-Bernardos, M. L., Sanz, J., Carrillo, J., & Rojo, N. (1998). Self-presentation strategies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1), 108-114.
- Bandura, A., Grusec, J. E., & Menlove, F. L. (1966). Observational learning as a function of symbolization and incentive set. *Child Development*, 499-506.
- Barlett, M. S. (1947).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s Society*, 9, 176-197.
- Bellino, S., Zizza, M., Paradiso, E., Rivarossa, A., Fulcheri, M., & Bogetto, F. (2006). Dysmorphic concern symptoms and personality disorders: a clinical investigation in patients seeking cosmetic surgery. *Psychiatry Research*, 144(1), 73-7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ash, T. F., & Labarge, A. S. (1996).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A new cognitive body-image assess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1), 37-50.
- Castle, D. J., Honigman, R. J., & Phillips, K. A. (2002). Does cosmetic surgery improve psychosocial wellbeing?.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6*(12), 601.
- Cattell, R. B. (1946).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Yonkers, NY: World Book.
- Davis, C., Claridge, G., & Brewer, H. (1996). The two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dynamics of body 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2), 153-166.
- Davis, C., Claridge, G., & Fox, J. (2000). Not just a pretty fac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fectionism in the risk for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1), 67-73.
- Davis, C., Dionne, M., & Shuster, B. (2001).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appearance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1), 21-30.
- Edgerton, M. T., Jacobson, W. E., & Meyer, E. (1961). Surgical-psychiatric study of patients seeking plastic (cosmetic) surgery: ninety-eight consecutive patients with minimal deformity. *British Journal of Plastic Surgery, 13*, 136-145.
- Ercolani, M., Baldaro, B., Rossi, N., & Trombini, G. (1999). Five-year follow-up of cosmetic rhinoplas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7*(3), 283-286.
- Figueiredo, D., Rocha, E., Batista, M., Paranhos, R., & Alexandre, J.

- (2014). Cluster analysis for political scientists. *Applied Mathematics*, 6, 2408-2415.
- Fiske, D. W. (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 329-344.
- Fitzpatrick, S., Sherry, S., Hartling, N., Hewitt, P., Flett, G., & Sherry, D. (2011).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27(6), 176e-177e.
- Goin, M. K., Goin, J. M., & Gianini, M. H. (1977). The psychic consequences of a reduction mammoplast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59(4), 530-534.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ir, J. F.m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6-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 G. G. (1970). Psychiatric aspects of cosmetic nasal op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6(530), 85-97.
- Henderson King, D., & Brooks, K. D. (2009).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s,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133-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4), 317-326.
- Hewitt, P. L., Sherry, S. B., Flett, G. L., & Shick, R. (2003). Perfectionism and cosmetic surger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12(1), 346.
- Hill, G. & Silver, G. A. (1950). Psychodynamic and esthetic motivations for plastic surgery. *Psychosomatic Medicine*, 12(6), 345-355.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2),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1*. Retrieved from <http://www.isaps.org/Media/Default/global-statistics/ISAPS-Results-Procedures-2011.pdf>.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3),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0*. Retrieved from

<http://www.isaps.org/Media/Default/global-statistics/ISAPS-Results-Procedures-2010.pdf>.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5),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4*. Retrieved from <http://www.isaps.org/Media/Default/global-statistics/2015%20ISAPS%20Results.pdf>.
- Javo, I. M., & Sørli, T. (2009).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mong young Norwegian women: a population-based stud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24*(6), 2142-2148.
- Jung, J., & Lee, S. H. (2006). Cross cultural comparisons of appearance self schema, body image, self esteem, and die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US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4*(4), 350-365.
- Kvalem, I. L., von Soest, T., Roald, H. E., & Skolleborg, K. C. (2006). The interplay of personality and negative comments about appearance in predicting body image. *Body Image*, *3*(3), 263-273.
- Marshall, W. L., Anderson, D., & Champagne, F. (1997).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sexual offending: Invited Article. *Psychology, Crime and Law*, *3*(3), 161-186.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 Mooi, E., & Sarstedt, M. (2011). *Cluster analysis* (pp. 237-284).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1), 148.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6), 574.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ervin, L. A., Robins, R. W., & John, O. P. (2008). *Handbook of Personality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gers, B. O. (1986). John Orlando Roe—not Jacques Joseph—the father of aesthetic rhinoplasty. *Aesthetic Plastic Surgery, 10*(1), 63-8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Y: Princeton University.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rwer, D. B., Wadden, T. A., Pertschuk, M. J., & Whitaker, L. A. (1998).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1), 1-22.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 Lee-Baggley, D. L. (2007). Perfectionism and undergo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29*(8), 349-354.

- Sherry, S. B., Hewitt, P. L., Lee-Baggley, D. L., Flett, G. L., & Besser, A. (2004). Perfectionism and thoughts about having cosmetic surgery performed.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9*(4), 244-257.
- Sherry, S. B., Hewitt, P. L., Lee-Baggley, D. L., Flett, G. L., & Besser, A. (2005). Perfectionism and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15*(6), 1806-1807.
- Swami, V., & Mammadova, A. (2012). Associations between consideration of cosmetic surgery, perfectionism dimensions, appearance schemas, relationship satisfaction,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love style.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0*(2), 81-94.
- Swami, V., Chamorro-Premuzic, T., Bridges, S., & Furnham, A. (2009).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Body Image, 6*(1), 7-13.
- Swami, V., Hadji-Michael, M., & Furnham, A. (2008).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correlates of positive body image. *Body Image, 5*(3), 322-325.
- The Economist (2013, January 30). Plastic makes perfect.
- Thomas, C. S., & Goldberg, D. P. (1995). Appearance, body image and distress in facial dysmorphophobi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2*(3), 231-236.
- Van Der Zee, K. I., Buunk, B. P., Sanderman, R., Botke, G., & Van Den Bergh, F. (1999). The Big Five and identification-contrast processes in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cancer treatment.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4), 307-326.

- Von Soest, T., Kvalem, I. L., & Wichstrøm, L. (2012). Predictors of cosmetic surgery and its effects on psychological factors and mental health: a population-based follow-up study among Norwegian females. *Psychological Medicine, 42*(3), 617-626.
- Von Soest, T., Kvalem, I. L., Skolleborg, K. C., & Roald, H. E. (2009). Cosmetic surge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xtraversion: Testing a transactional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17-1025.
- Ward Jr, J. H.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301), 236-244.
- Wyatt, R., & Gilbert,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 study exploring their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rank and statu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71-79.

## ABSTRACT

### Attitudes to Plastic Surger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 a Cluster Analysis of the Big-5 Personality Traits and Perfectionism

Taehee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smetic surgery has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s. However, epidemiological data on the potential variables predicting an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re scarce. He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sychological factors to predict a positive attitudes to cosmetic surgery among college women using cluster analysis of the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perfectionis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4 college women attending university in Seoul. They completed measures of attitudes to cosmetic surgery,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and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s. To reveal subtypes, data on personality and perfectionism entered into the two-step cluster analysis, which tries to accommodate hierarchical and non-hierarchical techniques. Four cluster groups were identified. The first cluster('neurotic-closed

perfectionist') was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neuroticism, self-orientation perfectionism, other-orientation perfection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low levels of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The second cluster('lack-of-direction and introverted non-perfectionist') was typified by the low levels of all of the five traits and all of the three perfectionisms. The third cluster('neurotic-introverted perfectionist') exhibited the high levels of all of the five traits and all of the three perfectionisms. The Last cluster('emotionally stable and extroverted non-perfectionist') was a constellation of low levels of neuroticism and all of the perfectionisms and the high levels of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agreeability. Through one-way ANOVA,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attitudes to cosmetic surgery among those four groups.

*Keywords:* attitudes to cosmetic surgery; personality; perfectionism; cluster analysis

## 부 록

부록 1. 성향태도 척도

부록 2. 성격 5요인 척도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부록 3.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여대생 여러분이 지각하는 개인의 성격, 완벽주의 성향, 성형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과 성형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지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에서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연구결과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연구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들은 모두 분쇄기로 폐기처리 될 것입니다. 연구에 포함된 질문들에는 별도의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들이 제시된 순서대로 답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나,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02-920-7738, 7739).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대생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지도 교수 이 정 윤  
석사 과정 윤 태 희  
(연구자 연락처: [vanessayoun1129@gmail.com](mailto:vanessayoun1129@gmail.com))

“위에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며, 이 연구 참가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

◆ 다음의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성형수술을 꼭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성형수술은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꼭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3	성형결과가 다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더라도 꼭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아름다워진다면 비록 위험할 지라도 성형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5	성공적인 성형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외국에라도 가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연예인처럼 성형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7	성형을 해서 예뻐진 친구를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8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내가 저축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9	성형수술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10	성형에 대한 광고를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11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2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3	성형을 통해 신체적으로 불만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날씬한 몸매를 위하여 성형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성형수술을 한다면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 성형 전 모습이 알려지지 않기 바란다.	①	②	③	④
16	성형을 한다면 성형 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두 없애고 싶다.	①	②	③	④
17	성형수술을 한다면 나만의 비밀로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18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원한다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19	부모님이 원하시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성격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옳거나 그른 답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흔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쉽게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지러워지면 즉각 청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 물건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사람들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7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쉽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9	추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2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3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45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④	⑤
46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7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9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0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의 문항을 읽고 평소에 귀하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단 일을 시작하면 다 끝마칠 때까지는 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너무 쉽게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비난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가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목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하면서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주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봐도 나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일을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다고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게 중요한 사람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주위 사람들에게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모든 일에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매우 속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한 경우 그 일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와 가까운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게 중요한 사람은 결코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7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남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나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내게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친한 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내게 그리 문제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가 실수를 할 경우에도 내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잘 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 : 만 \_\_\_\_\_세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⑥ 기타(            )
3. 학교유형 : ① 남녀공학    ② 여자대학
4.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법학계열                                    ⑤ 생활과학계열                    ⑥ 사범계열  
                   ⑦ 예체능 계열                                ⑧ 의학/간호 계열                    ⑨ 기타 (            )
5.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③ 20-30만원  
 ④ 30-40만원                                ⑤ 40-50만원                                ⑥ 50-60만원  
 ⑦ 60-70만원                                ⑧ 70만원 이상
6. 한 달 평균 외모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의복포함, 패션 및 미용관리)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③ 20-30만원  
 ④ 30-40만원                                ⑤ 40-50만원                                ⑥ 50-60만원  
 ⑦ 60-70만원                                ⑧ 70만원 이상
7. 본인의 현재 키 : \_\_\_\_\_ cm                    몸무게 : \_\_\_\_\_ Kg
8. 미용성형 수술/시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미용성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혹은 이미 실행했다면), 수술/시술을 받고 싶은(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 수술의 불만족(동일 신체부위)  
 ②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  
 ③ 흉터 등의 신체 부위의 결점 보완  
 ④ 보다 나은 사회생활(직장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이성, 배우자 등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포함)  
 ⑥ 주변의 권유  
 ⑦ 기타(            )
10. 미용성형 수술/시술을 했다면 몇 번의 미용성형을 받으셨습니까?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